

#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수행과 조선반도

장 경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84권 128페이지)

오늘 미제는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기본으로 내세우면서 그 요충지에 있는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기 위한 모험적인 침략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어느 시각에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조선반도는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수행에서 어제든 오늘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가 세계제패를 로골적으로 떠들기 시작한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이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지난 시기 경쟁대상이였던 렬강들이 심히 약화되고 저들이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여 오래전부터 꿈꾸어오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적인 범위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출현은 저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꿈꾸는 미제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으로 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정치, 경제, 군사적대결 즉 랭전을 선포하였으며 여기에서 조선은 그 첫 돌파구를 여는 사상과 제도의 대결장, 놓쳐서는 안될 전략적요충지로 선택되였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직후부터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즉 지정학적위치로 볼 때 소련과 중국과 린접해있는 조선반도의 북부지역에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는 경우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아시아전략실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할것이라고 타산하였던것이다.

실지로 1946년 초여름 당시 미국대통령의 배상문제특별보좌관 에드윈 포레이는 조선을 돌아보고 6월에 트루먼에게 제출한 《조선정세에 관한 견해, 결론 및 권고》라는 시찰보고에서 《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이기는 하나 아시아에서 우리의 전체 성공이 결정될수 있는 사상전쟁의 무대로 된다.》라고 하였다. 해방직후 조선문제와 관련한 미국무성 정보조사국의 비밀보고서는 조선과 그 인민을 지배하는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하는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세계제패전략수행에서 조선반도가 가지는 정치적중요성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세계제패전략실현에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1950년대에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고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에도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지금까지도 계속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을 추구하고있다.

조선반도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수행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의의는 랭전종식이후 미제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나선 력사적시점에서 더욱더 부각되였다.

이 시기 로골적으로 저들이 주도하는 1국화된 세계를 제창해나선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세계제패야망실현에서 반공화국침략정책에 초점을 두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우리 공화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들었지만 우리 공화국은 상상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면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였다.

이것은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했다고 환성을 올리던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두고 방임할수 없는 사태발전이라고 인정하였다.

더우기 주체81(1992)년 4월 20일에 발표된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의 재생과 중국적승리를 위한 국제적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으로,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옹호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단결과 투쟁의 전투적기치로 되었으며 여기에 서명한 공산당, 로동당들의 수는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수립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세력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가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수행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다.

미국의 VOA방송도 우리 공화국이 앞으로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적판도에서 다시 사회주의재생을 몰아올 가장 영향력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조선반도는 지구상에 미국식자유민주주의만이 존재하는 1극화된 세계를 추구하는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파탄되는가를 판가리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로 되었다.

다음으로 조선반도는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수행에서 군사적으로 놓쳐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로 간주되고있다.

아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조선반도는 육지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대륙인 유라시아 대륙과 잇닿아있고 바다로는 태평양과 연결되어있다.

국가형성초기부터 세계제패를 노려온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아시아나라들을 쉽게 침략할수 있고 나아가서 전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예나 지금이나 더없이 중요한 군사 전략적요충지였다.

력대적으로 미제는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항상 해양전략수행에 큰 의의를 부여하여왔으며 여기서 조선반도에 매우 중요한 군사전략적의의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태평양과 면하여 대륙과 연결된 조선반도가 해상을 통하여 군사적점령의 범위를 광활한 대륙으로 확대해나갈수 있는 전초기지로 되었기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벌써 남북전쟁이후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육군과 해군이 의거할 지역을 쟁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그후 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침략을 앞장에서 집행한 맥아더는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은 대륙으로 건너가는 교량으로서 맞춤하다.》라고 떠벌이면서 미국이 조선의 전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씨비리와 남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끊어버릴수 있으며 올라지 보스포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지역을 지배할수 있을것이라고 뇌까리었다.

1949년 1월 28일부 미국무성 정보조사국 문건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지리적위치로 하여 조선을 지배하고 그 인민들의 마음을 틀어잡는것은 극동에 리해관계를 가진 그 어떤 렬강에게도 리로운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후날 잠재적인 적에 대처하기 위하여 리용가치가 있는 조선반도를 군사기지로 만드는데것이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지적되어있다.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미제는 줄곧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차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반공화국침략전쟁도발에 미쳐날뛰었다.

1975년 5월 1일 당시 미국방장관 슬레징거는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이 핵무기가 배비되어있는 미국의 《전선방위지역》이라고 하였고 1980년대에 당시 미국대통령 레간은 조선반도가 핵무기사용대상인 1급지역에 해당하는 전략상요충지대라고 선언하였으며 국방장관 와인버거는 남조선이 유럽과 함께 미국전략의 제1선으로 된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전략적거점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미국의 대아시아군사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된다고 떠벌이었다.

랭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세계의 중심인 유라시아대륙을 지배하려면 그를 둘러싼 주변의 가장자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가장자리전략이라는것을 내놓고 21세기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자면 조선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지역을 비롯한 3개의 지역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미제는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놓고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조선반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군사전략적요충지로 간주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현대의 조선반도정세가 크게 변화되고있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것은 지리적조건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활동적인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다고 평가하였다.

군사전략상 더없이 중요한 지역인 조선반도를 전방군사전략거점으로 안전하게 리용하는데서 미제는 전조선을 통채로 저들의 군사적지배밑에 넣음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였던것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압록강, 두만강일대를 군사적 교두보로 하여 중국, 로씨야를 압축하고 유라시아대륙의 광활한 지역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자는것이 미국군사전략가들의 타산이다.

바로 이러한 리유로 하여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오늘까지 조선반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가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군사전략적요충지이기때문에 미제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배치하고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하여 미군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서도 남조선강점 미군은 계속 늘이고있다. 실례로 2013년에 미제는 남조선에 미 제23반화학대대와 미육군 제6기병련대 제4공격직승기정찰대대를 끌어들이였고 2014년 2월에는 이라크전쟁에 동원되었던 미군 12기갑련대의 대대병력과 수십대의 장갑차를 군사분계선가까이에 배치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남조선에 거액의 군사원조를 아낌없이 퍼부으면서 세계최대의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이후 1960년대까지 남조선에 준 군사원조가 115억 9 200만US\$라는 사실 그리고 남조선에 무려 100여개의 미군기지들이 동지를 틀고있는 사실 등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미제는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수십만의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울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이와 같은 력사적사실들은 바로 미제가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군사적요충지로 삼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았기 위해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한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다음으로 조선반도는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서 경제적으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전략적요충지로 간주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광대한 령토와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세계 총 령토면적의 근 절반, 세계 총인구수의 근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때문에 오늘 이 지역은 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로동력과 원료원천지, 시장을 확대할수 있는 무한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평가되고있다.

특히 원료원천의 보물고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는것은 동북아시아지역이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각종 원료가 풍부하고 수송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아직도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수 있는 곳은 동북아시아지역 즉 로씨야의 원동지방과 중국의 동북지방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지리적으로 볼 때 원동지역과 중국동북지역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을 개발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 수송문제를 풀자면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를 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조선반도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기때문에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고 바다자원을 개발하는데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조선반도에는 여러가지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지하자원이 많고 자연부원이 다양한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이미 알려진 광물의 종수만도 300여종이며 그중 유용광물이 200여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경제적가치를 잘 알수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세계경제의 활력있는 중심무대로 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요충지에 있는 조선반도는 이 지역의 경제를 련결시켜 더욱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것으로 하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눈독을 들이고있는 세계적인 초점에 놓여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다른 대국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신경을 쓰고있는 미제는 이 지역 특히는 경제적전략지대인 동북아시아의 관문에 위치하고있는 조선반도의 지배권을 틀어쥐려고 더욱 열을 올리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결국 미제의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고리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와 련결되어있다. 따라서 미제는 우리 공화국의 존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조선반도를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수행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고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있다.

우리는 미제의 세계제패야망을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며 적들이 끝내 전쟁을 일으킨다면 선군의 보검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이다.